

국외출장 결과보고

2019. 1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및 경제·사회문화 발전 기여 차원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코자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개발한 해외도시(오클랜드, 브리즈번, 시드니) 과학기술문화, 도시·건축 공간, 친환경 교통, 문화 관광 등 부문별 정책 및 사례조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내용	3
1. 뉴질랜드(오클랜드)	3
2. 호주(골드코스트)	17
3. 호주(브리즈번)	24
4. 호주(시드니)	33
III. 출장 성과(기대효과)	50

I. 출장 개요

① 배 경

- 도시의 변화와 다양성 확인을 위한 국외 선진사례(뉴질랜드, 호주) 도시에 대한 답사 필요
- 연구원의 국제 역량 강화와 대전과 세종의 시책 적용이 가능한 자료 수집
- (국가 측면) 세계 행복 순위(Ranking of Happiness 2015-2017)에서 뉴질랜드는 8위, 호주는 10위를 기록하였고, 2018년 기준 세계번영지수(Global Prosperity Index)에서 뉴질랜드는 2위, 호주는 13위를 기록함
- (도시 측면) 2018년 기준 세계 환경 조사(Quality of Living Survey) 결과 살기 좋은 도시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가 3위, 호주의 시드니가 11위, 브리즈번이 35위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스컴바인이 분석한 장기 체류 여행지 순위에서 천혜의 자연과 현대화된 도시의 조화가 장점인 호주의 3곳(시드니: 2위, 골드코스트: 17위, 브리즈번: 21위)이 상위 30개 순위 내에 포함됨

② 목 적

- 천혜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한 주요 도시(오클랜드,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시드니)에 대한 사례조사
- 지속적 도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도시 정책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이를 대전과 세종의 시책 및 연구 계획 시 반영
- 세부적으로는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과학기술문화, 도시 성장을 위한 녹색 건축 및 생태도시, 친환경 교통, 체험형 문화관광 등 부문별 정책 및 사례 조사 수집을 통해 시책에 적용·반영

3 주요 일정

일정	방문도시	방문기관(장소)	업무 수행내용
12/2 (월)	오클랜드	-	· 이동(인천 → 오클랜드)
12/3 (화)	오클랜드	· 캘러한 이노베이션 (Callaghan Innovation)	· 혁신 정부산하기관 우수사례 현장답사
		· 오클랜드 구 · 신청사	· 시청사 현장답사
		· 관광 인포메이션센터	· 도시관광 안내센터 현장답사
12/4 (수)	오클랜드	· 오클랜드 도메인(Auckland Domain)	· 도심부 지역자산 활용 현장답사
		·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현장답사
		· 빅토리아 파크(Victoria Park)	
		· 전쟁기념박물관, 스카이다워	· 도심부 대중교통망 사례조사
· 오클랜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12/5 (목)	골드코스트	-	· 이동(오클랜드 → 골드코스트)
12/6 (금)	골드코스트	·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 혁신 교육기관 우수사례 현장답사 : 호텔 관광분야 우수 교육지
12/7 (토)	브리즈번	· 사우스뱅크(South bank) : 퀸즐랜드 박물관, 아트갤러리, 주립도 서관 등	· 도시자원을 활용한 도시 문화관광 현장답사
		· 브리즈번 구 · 신청사	· 시청사 현장답사
		· 브리즈번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 도심부 대중교통망 사례조사
12/8 (일)	시드니	-	· 이동(골드코스트 → 시드니)
12/9 (월)	시드니	· 시드니 센터링크(Centerlink)	· 정부조직 방문 : 대민서비스 통합제공 서비스
		· 스타트업 허브	· 지역 혁신창업지원 사례조사
		·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달링하버, 하버 브릿지 등	·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현장답사
12/10 (화)	시드니	· 테크놀러지 시드니 대학교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혁신 교육기관 우수사례 현장답사
		· 시드니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트램 등)	· 도심부 대중교통망 사례조사
12/11 (수)	인천	-	· 이동(인천 도착)

II. 출장 내용

1 뉴질랜드(오클랜드)

1. 도시현황

- (명칭) 오클랜드(Auckland)
- (인구) 2018년 기준 169.5만명
- (면적) 1,086km² (뉴질랜드 전체: 268,021km², 수도 웰링턴: 119.8km²)
- (역사) 1840년부터 1865년까지 뉴질랜드의 수도
- 총 요트 수는 약 40~50만대로 인구 3명 중 1명이 요트를 소유할 만큼 ‘요트의 도시’로 불리는 곳으로, 현대적·역동적 특징 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친절하고 친근한 지역주민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호주 브리즈번, 중국 광저우, 일본 후쿠오카,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 함부르크 등이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자매결연 도시임

2. 도시성격

- (최대도시) 뉴질랜드의 현재 수도인 웰링턴에 비해 면적이거나 인구 등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오클랜드는 소매, 금융, 상업 등이 중심이 된 뉴질랜드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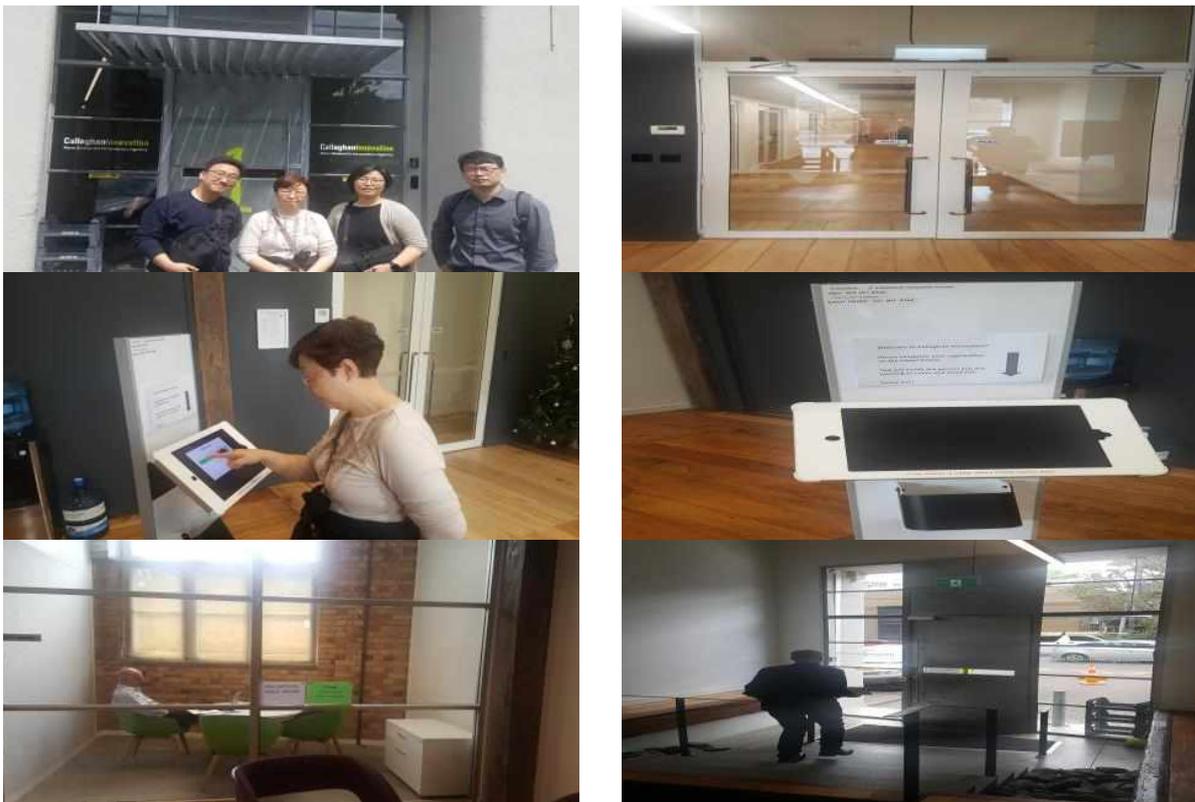
3. 현장답사

(1) 지역 혁신기관: 켈러한이노베이션(Callaghan Innovation)

- (위치) Ground Floor, 1 Watt Street, Parnell, Auckland 1052
- (기본정보) 「Callaghan Innovation」은 뉴질랜드의 첨단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뉴질랜드 혁신생태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혁신지원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주요기능) 「Callaghan Innovation」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기술 인큐베이팅, ②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③ 혁신 숙련 지원, ④ R&D 자금지원, ⑤ 스타트업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 「Callaghan Innovation」이 다른 혁신지원 기관과 차별성을 갖는 특이한 점은 자체적인 기술개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임. 물론 타 과학기술 조직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130여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난제들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뉴질랜드 북섬 남단 Gracefield 지역에 위치한 「Callaghan Innovation」 산하 연구기관인 「Gracefield Innovation Quarter」에서는 개념단계의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제품화 설비들, 예를 들어 파일롯 생산 설비, 프로토타입 설비, 물질분석, 테스트 랩, 측정 장비 등을 갖추고 이를 지원할 엔지니어들의 서비스 까지 받을 수 있음
- (조직구성) 130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 외에 기획, 행정,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총 300여명의 인력이 기업의 혁신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Callaghan Innovation」은 다양한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혁신 주체로서는 9개의 대학과 뉴질랜드 대표 공공연구기관인 「Crown Research Institute」와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the Treasury, Ministry of Primary

Industries, New Zealand Venture Investment Fu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과 파트너십 하에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시사점) 「Callaghan Innovation」은 뉴질랜드 정부의 통합적 혁신지원기구로서 범부처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된 혁신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별로 개별 에이전시를 운영함에 따라 중복성과 규모경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 지역혁신 지원 시스템과 비교됨. 또한 혁신의 전주기를 지원하면서 기술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사업화 기술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연구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어 개념과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업화 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음
- 과학기술 관련 정부혁신기관으로서 다양한 인큐베이팅을 맞고 있지만, 충분히 관광 관련 창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 참고는 가능함. 즉, 1인 창업자라도 아이템이 좋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멘토-멘티 개념처럼 관리하여 대전의 관광산업에 적용할 수 있음



(그림 1) 캘러한이노베이션 사진

(2) 시청사 공간활용: 오클랜드 구(舊)·신청사

- (위치) Queen Street, Auckland CBD, Auckland 1010(구청사)
135 Albert Street, Auckland 1010(신청사)
- (기본정보) 1911년 개관한 오클랜드 시청사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 네오바로크 건축 양식의 건축물임. 현재 오클랜드 협의회 소유 건축물로 관련 기관에서 관리 운영 중임
- (주요기능) 신청사 이전(2016년) 후 기존 구(舊)청사는 현재 중소 규모의 쇼와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과 세미나실 등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지님. 아오티아 센트르(Aotea Centre), 아오티아 스퀘어(Aotea square)와 연계하여 다양한 공연 및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오클랜드의 주요 시민 복합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음
- 오클랜드 신청사 건립·이전 후 기존 청사가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시민 일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는 생활권 중심으로 별도 설치되어 있음. 이에 오클랜드 신청사는 시 행정 관련 업무공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층 로비 대기 공간 외 별도의 시민 개방공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구(舊)청사 내부 공연장에는 양질의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일부 공공기관 입주 관련 업무와 전문가 설명이 포함된 투어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서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신청사는 일반 빌딩에 입주하여 행정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방문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부서 및 이름 등을 입력하는 등 시민 접근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구(舊)청사의 경우 건물 자체가 주는 매력이 있는 가운데, 유희시설에 대

한 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다각화가 중요함을 제시해주는 사례임



(그림 2) 오클랜드 구·신청사 전경 및 내부사진

(3-1) 지역자산 활용: 오클랜드 도메인(Auckland Domain)

- (위치) Park Road, Grafton, Auckland 1010
- (기본정보) 1880년 공원지대로 지정, 규모 약 750ha(약 24만평)의 대규모 도시공원
- (주요기능) 도시공원 및 박물관 등 문화집회시설
-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되어 고산의 평지, 움푹 팬 구간 등 지형적 특성이 있음. 분화구 주변 움푹 팬 지형은 공연장으로 활용 중이며, 1913년 열대 온실을 건립하여 온대 및 열대식물을 전시, 관리하고 있음
- 언덕 위에 위치한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은 1852년 그리스 양식으로 건

립되었으며, 오클랜드 지역의 역사, 자연, 전쟁 등의 역사적 자료를 담은 전시관과 오클랜드 원주민의 생활상을 그리고, 전쟁으로 떠난 이들을 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음

- 자연적 현상에 의해 형성된 곳에 많은 식생을 구성하여 관리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대가 가장 높은 곳에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체험 요소를 강화시킴



(그림 3) 오클랜드 도메인 전경사진

(3-2) 지역자산 활용: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 (위치) Jellicoe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 (기본정보) 선착장과 창고, 석유 및 액체화학저장시설 등 산업시설이 밀집한 노후된 항구를 오클랜드 시와 오클랜드 지역협의회가 협의하여 2011년부터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임
- 2011년부터 워터프론트, 도심공원 등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과 주거 및 업무지역 등 복합용도시설(MXD) 개발을 통해 시민 수변공간에서의 문화향유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견인 주체로 조성 중에 있음
- (주요기능) 해양스포츠 시설, 도심공원,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거복합시설 등
- 윈야드 쿼터에서 남측면으로 이어진 구역은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현장에서 구역별 일반공사 개요와 건축물 조감도에서 저층부 상업시설과 고층부 주거시설로 복합된 형태의 주거복합시설군의 개발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음. 사업계획 내용상 건축물 높이는 약 15층에서 40층으로 중고밀로, 고밀개발을 통한 지상부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시민에게 보다 넓은 수변공원 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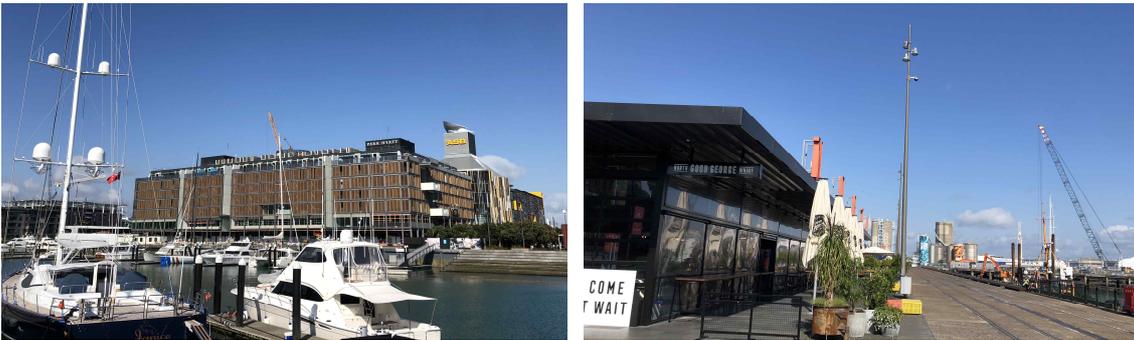


(그림 4) 기존 산업시설물과 연계한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수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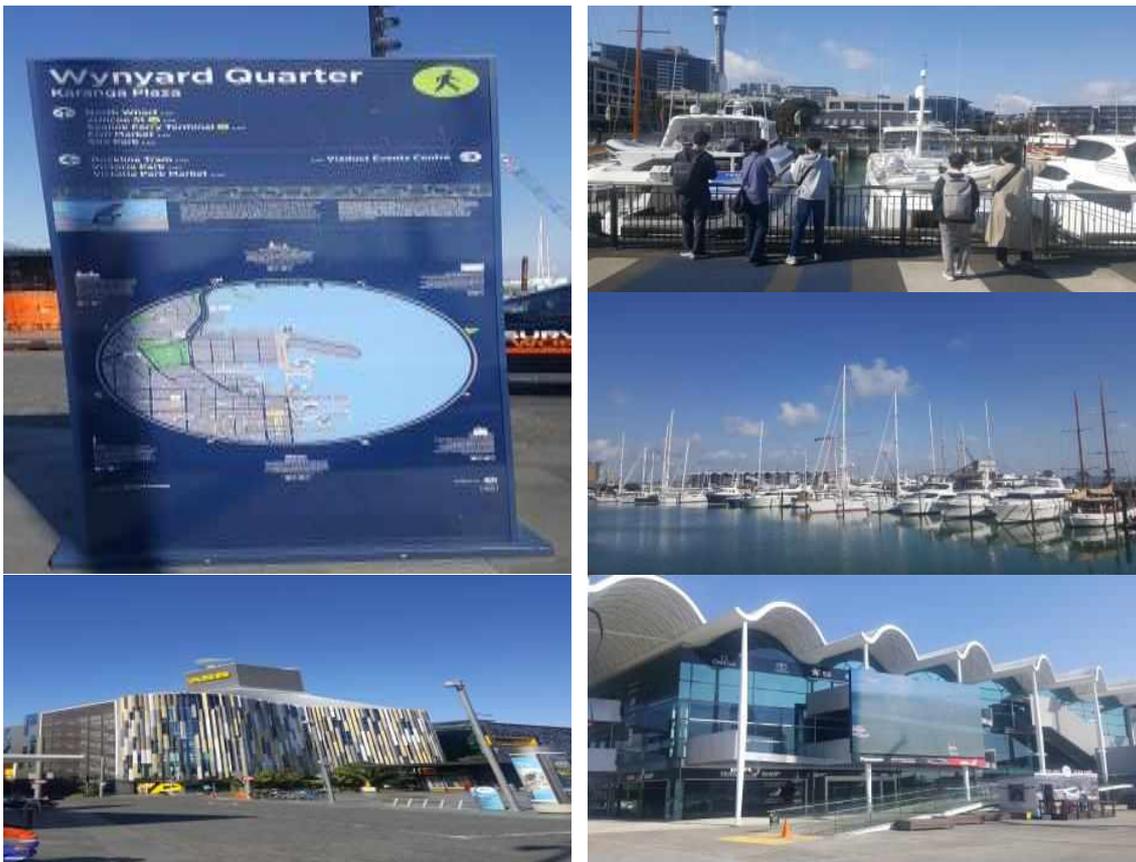
- 윈야드 쿼터 내 위치한 건축물에는 신축의 경우 목재 등 친환경 재료로 외장을 마감하거나, 해양 이미지를 모티브로 건축물 파사드를 계획하여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음. 일부 식음시설의 경우 기존 창고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 시설 공간 확보에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큼

- 낙후지역을 새로운 여가·휴양공간으로 계획하고, 단계별로 개발하면서 새로운 곳의 기능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음



(그림 5)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지속가능한 시설 공간 확보 사례



(그림 6)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전경사진

(4-1)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활용: 전쟁기념박물관

- (위치) The Auckland Domain, Parnell, Auckland 1010
- 오uckland 지역에 대한 역사(예: 마오리 관련 자료/ G층) 뿐만 아니라 자연사(1층), 전쟁 관련 역사(2층)를 보여주는 종합박물관으로 ‘오uckland 박물관’으로 불리며,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오uckland의 대표 관광지임
- 오uckland 도메인은 자연 현상에 의해 형성된 곳으로 지형적 특징이 뚜렷한 곳에 오uckland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을 위치시켜 랜드마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임
- 아울러 영문 명칭은 ‘Auckland War Memorial Museum’이지만, 전쟁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대한 역사 전반을 집적화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특히 마오리족 공연(입장료 이외 추가 요금 발생)이나 학생 단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화산 폭발 체험, 해양 관련 과학체험공간 등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음



(그림 7) 전쟁기념박물관 체험프로그램 내부사진

(4-2)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활용: 빅토리아 파크

- (위치)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CBD, Auckland 1010
- 오클랜드를 대표하는 공원 및 운동장으로 공원을 중심으로 야시장이나 스케이트보드 연습장, 그리고 주변에 복합 클러스터화(체육관, 필라테스 스튜디오, 갤러리, 식당 등)되어 있는 빅토리아 공원 시장이 위치하고 있음
- 정적인 활동 위주의 하드웨어 공간에 시민참여형 공간을 확보하여 활동 가능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그림 8) 빅토리아 파크 사진

(4-3)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활용: 스카이다워

- (위치) Victoria Street West, Auckland CBD, Auckland 1010
- (주요기능) 도시경관을 전망하는 전망대 및 식음시설, 고상레포츠시설 등
- 스카이다워는 높이 328m로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임(※ 참고: 프랑스의 에펠탑보다 20m 이상 높음). 타워 끝에는 스카이점프, 스카이워크 등의 익스트림 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상층부 레스토랑(Orbit 360° Dining)은 시설 바닥을 360도 회전토록 계획, 오uckland 도시 경관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음
- Skycity 전망대는 저층부 노출된 구조체가 타워 상층부를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360도 전망을 고려하여 고층부 전망대 부분은 평면적으로 원형의 형태를 띠며, 건축물의 외관은 콘크리트가 노출된 형태로 별도의 외장 마감을 취하고 있지 않아 전망대와 인접한 사면체 커튼월 건축물과 비교 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모티브를 지니고 있음
- 스카이다워 내 집적시설 중 하나로, 오uckland시 어디에서든 스카이다워가 보일 정도로 높은 시설이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스카이다워 내 다양한 역할(예: 아웃도어 체험, 전망대, 기념품 구입, 관광 정보 획득, 식사 등)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에 도움이 되는 시설임



(그림 9) 스카이다워 사진

(5) 도시관광 정보 제공: 관광 인포메이션센터

- (위치) Corner Victoria &, Federal Street, Auckland 1010
- 공식 명칭은 “Auckland i-SITE Visitor Information Centre” 로 3곳(Princes Wharf, SkyCity,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에 설치되어 오클랜드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 관광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음
- 특히 오클랜드의 랜드마크인 스카이다워가 위치한 “SkyCity” 의 관광 인포메이션센터는 시내 접근성이 우수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 인포메이션센터의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음. 아울러 스카이다워와 관련된 부속물(예: 레스토랑, 기념품점)이 관광 인포메이션센터와 같이 붙어 있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볼거리, 살거리 등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시너지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그림 10) 관광 인포메이션센터 사진

(6) 자전거와 보행자 우선의 교통체계

- (위치) Auckland CBD, Auckland 1010
- (교통)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예산 및 조직에 커다란 변화가 있으며 오클랜드 시청 내 부서를 교통안전에 관한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여 교통안전업무를 총괄하고 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전거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신호대기선에도 자전거들이 차량보다 앞에서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구획으로 조성



(그림 11) 자전거통행 우선의 도로구획선



(그림 12) 보행자 우선의 신호체계

(7) 대중교통 교통체계

- (위치) Auckland CBD, Auckland 1010
- (교통)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는 ‘The Speed Management Guide’ 에 근거하여 교통사고는 도로이용자의 책임이 아니라 법·제도·시설 등 인프라의 역할로 접근하여, 현재 오클랜드시 관할 도로의 약 760km 구간에 속도하향을 적용하여, 도심 내 20~30km/h로 속도를 제한함
- 국외 출장 중에 오클랜드 시는 건물 및 도로 공사구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차량 혼잡도는 높지 않았음
- 도심 내부 이동은 도보와 우버를 활용하였는데, 공사구간이 많은 관계로 도보 이동은 다소 불편하였으나, 우버는 일반 택시보다 앱 서비스 및 요금면에서 유리하였음



(그림 13) 대중교통수단 : 버스 및 경전철

2 호주(골드코스트)

1. 도시현황

- (명칭) 골드 코스트(Gold Coast)
- (인구) 2018년 기준 67.5만 명
- (면적) 414.3km² (호주 전체: 7,692,000km²)
- (역사) 19세기 초 정착 초기에는 임업과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20세기 초부터 관광산업에 투자하면서 호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휴양지가 됨
- 골드코스트의 해변은 필리핀 보라카이의 해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해변과 함께 세계 3대 해변 중 하나로 손꼽히며, 약 43km 정도의 황금빛 해변과 고층 빌딩(예: Q1빌딩 등)이 어우러져 있음
- 북쪽의 사우스포트에서부터 시작하여 서퍼스 파라다이스, 벨리헤즈, 쿨랑가타 등의 4개의 시로 구성된 연합도시로 온난한 기후 덕분에 세계적 관광 휴양지가 되었음

2. 도시성격

- (인구 증가율) 호주 내에서도 관광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자 호주 여행 코스에서 시드니와 함께 핵심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골드코스트의 인구 증가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현장답사

(1) 지역 혁신기관: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

- (위치) 1 Parklands Dr, Southport, Qld 4215
- (기본정보) 「Griffith University」는 호주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종합대학의 하나로 호주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에 걸쳐 5개의 캠퍼스를 두고 있음.
-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그리피스 대학 내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기업가 정신 코스를 통해 ‘기업혁신학사(Bachelor of Business Innovation)’ 코스와 석박사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 그리피스 대학에서는 아시아 학과와 비즈니스 스쿨 내 아시아 연구소(Griffith Asia Institute)를 두고 비즈니스, 무역, 법, 정부, 국제관계 등 학부와의 결합 전공을 통해 아시아 관련 인재 양성을 하고 있음.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는 아시아 연구의 선두 연구기관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의 지향성을 가지고 학제간 연구를 통해 발전론(Development Studies)를 전개하고 있음. 최근 “The next AI super power” 등 미래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아시아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혁신과 발전론을 연결 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지역 산업환경 변화) 그리피스 대학이 입지한 골드코스트는 최근 지역 내 입지한 Gold coast University Hospital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 의약 분야와 헬스케어 분야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있음. 특히 골드코스트가 양호한 기후와 쾌적한 환경으로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변화하면서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당 산업의 성장에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연구중심 대학인 그리피스 대학도 산학관 연계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대학 내 조직인 「Griffith Enterprise」를 통해 산업과 정부의 수요를 대학의 연구역량 및 혁신활동

과 연계시키기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창업지원) 그리피스 대학에서는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Lean Start-up」과 「Three day start-up (3DS)」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Lean Start-up」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개발, 서비스 개발을 테스트하기 위한 숙련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 기반의 프로그램임. 「Three day start-up (3DS)」 프로그램은 3일간 다양한 단기 워크샵(고객발견, 비즈니스모델, 프로토타이핑, 모의 투자설명회)을 통해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스킬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임
- 호텔관광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대학으로, 관계자 미팅(Ziyad Alwan/일본-한국 지역 마케팅 매니저)을 통해 그리피스 대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골드코스트 캠퍼스의 교육 시설과 환경 등을 견학함
- 특히 중국의 교육기관인 공자학원과 협약하여 중국어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에 대한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국제 학생 유치와 인턴십을 펼치면서 글로벌 역량 강화 노력을 하고 있음
-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그리피스 대학교 골드코스트 캠퍼스 안으로 교통수단인 트램이 지나가고, 넓은 캠퍼스 사이로 도로가 있어 보행자를 위한 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문객의 동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캠퍼스 곳곳에 안내 지도를 비치하고 있음
- 5개의 캠퍼스가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에 있는 그리피스 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캠퍼스에 동일 전공이 있음. 호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 학생을 모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야 특성화 및 학생 모집의 방향성이 명확함을 알 수 있음. 캠퍼스가 전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고객 편의성을 중시하면서도 캠퍼스 전체적인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2018년에는 커먼웰스 게임(Commonwealth Games)을 유치하기도 함



(그림 14) 그리피스 대학교 사진

(2) 테마형 관광 교통수단 활용: 아쿠아덕

- (위치) 36 Cavill Ave, Surfers Paradise QLD 4217
- (주요기능) 수륙양육 버스로 지상과 물 위를 약 1시간 정도 가이드의 설명

과 함께 탑승하여 체험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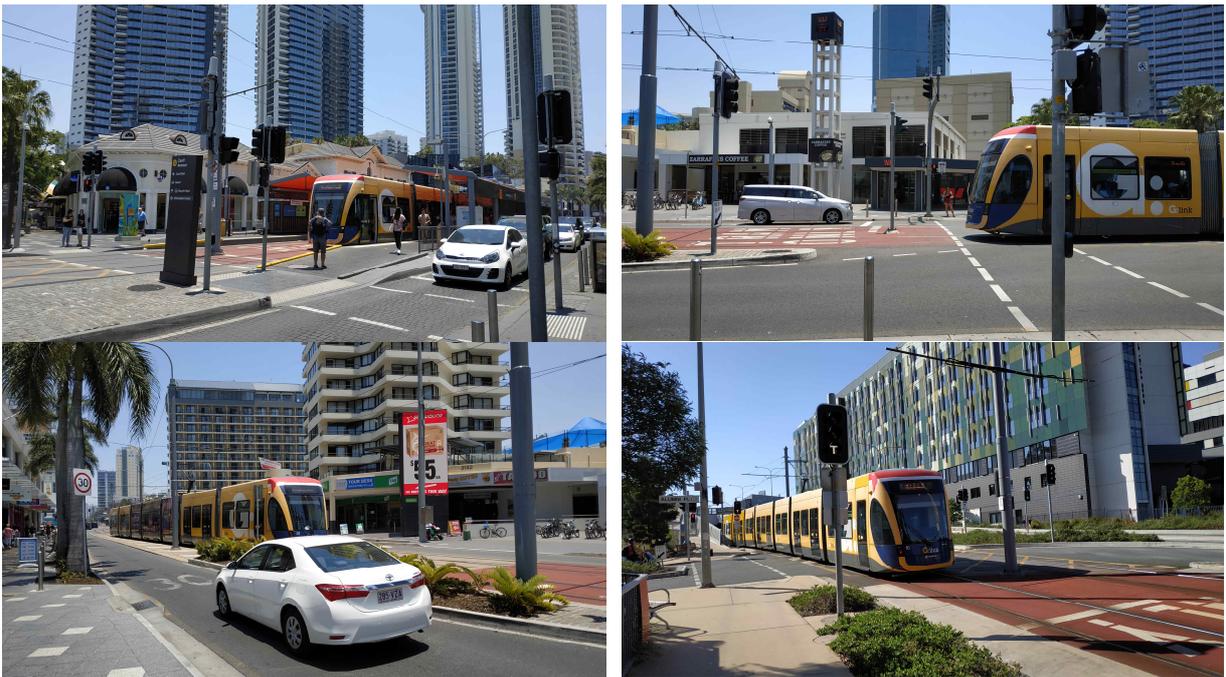
- 예약방식은 온라인(어플 이메일 등)과 전화로 가능하며, 매일 7번(10:00, 11:15, 12:30, 13:45, 15:00, 16:15, 17:30, 크리스마스 제외) 운행하며, holiday에는 6번(10:30, 11:45, 13:00, 14:15, 15:30, 16:45)을 추가 운행함
- 아쿠아덕 체험과 다른 익스트림 체험 활동(예: 제트보트, 소방차 트럭 탑승, 열기구 등)을 함께 구매 가능한 상품이 존재하며, 운행 중 물 위에서 아이들의 시 운전과 사진 촬영 및 수료증 제공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음
- 탑승 전 대기장소에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코스 안내도가 비치, 가이드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쿠아덕 체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음. 바다와 육지를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수륙양용 버스 자체가 주는 시각적 매력과 일반 시티투어의 순환형처럼 코스를 달리지만, 내리지 않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도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에는 충분한 테마형 관광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탑승객 뿐만 아니라 아쿠아덕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움직이는 랜드마크 기능으로 도시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음



(그림 15) 아쿠아덕 체험 사진

(3-1) 친환경 교통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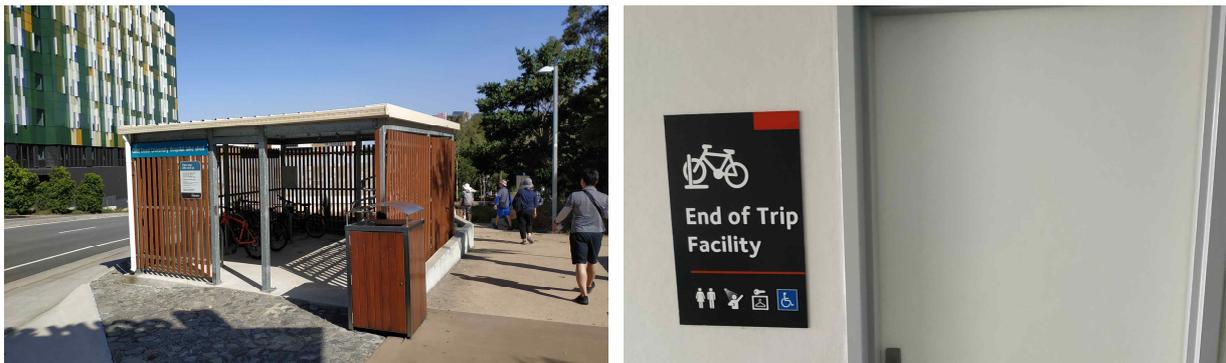
- (위치) 3113-3107 Surfers Paradise Blvd
- (교통) 호주는 주별로 교통카드가 다르며,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주는 오팔 카드, 멜버른 빅토리아주는 마이키 카드,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퀸즐랜드 주는 고카드를 사용함
- 골드코스트는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G:Link라는 트램이 운행되고 있으며, 정류장마다 티켓 부스가 있고, 탑승 시 턱이 없어서 여행자들이 캐리어 이동이 용이하며, 교통약자에게도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보여짐
- 트램은 도로 차선에서 운행하는 지상철 개념이며, 이로 인해 도시 중심가에는 승용차량 운행차선이 1차선으로 일방통행인 곳이 많았으나, 도로 혼잡도는 높지 않았음



(그림 16) 친환경 교통수단 : 트램

(4) 자전거 보관소

- (위치) Parklands Dr, Southport QLD 4215
- (교통) 호주에서는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모든 도로규칙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도 더욱 자전거 운전자를 조심하고 있음
-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시설투자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실외 자전거 보관소도 거치대를 포함하여 차양, 비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구조물로 건설
- 실내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로 통근한 뒤 샤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



(그림 17) 자전거 보관소 : 실외, 실내

3 호주(브리즈번)

1. 도시현황

- (명칭) 브리즈번(Brisbane)
- (인구) 2018년 기준 233.8만 명
- (면적) 15,826km² (호주 전체: 7,692,000km²)
- (역사) 브리즈번은 퀸즐랜드주(州)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주도로 ‘태양의 도시’ 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온화한 날씨로 유명함
- 시드니, 멜버른 다음으로 호주 내 3번째로 큰 도시인 브리즈번의 주요산업 중 하나는 관광으로, 브리즈번뿐만 아니라 퀸즐랜드 주(州)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광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전광역시를 포함하여 일본의 고베, 중국 선전, 인도네시아의 세마랑, 타이완의 가오슝, 중국의 충칭, 프랑스의 니스 등이 브리즈번의 대표적인 자매결연 도시임

2. 도시성격

- (이벤트 개최지) 세계 제2차 대전 때 맥아더 장군의 남서태평양군 사령부로서 연합군 작전의 중추 역할을 한 브리즈번은 굵직한 행사(1982년 커먼웰스 게임*, 1988년 세계박람회, 2014년 G20 정상회담 등)를 개최한 이력이 많음

* 영연방 소속 국가들 간의 종합스포츠대회로 4년마다 개최됨

3. 현장답사

(1-1)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 문화관광: 사우스뱅크(South bank)

- (위치) Stanley St Plaza, South Brisbane QLD 4101
- (기본정보) 1988년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16만㎡ 부지에 인공해변, 수영장, 레스토랑, 공원, 기념품점 등이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음. 사우스뱅크 주변으로 대관람차(The Wheel of Brisbane), 퀸즐랜드주 박물관, 모던아트 갤러리, 퀸즐랜드 주립 도서관, 고마미술관(Gallery of Modern Art) 등 다양한 문화집회시설이 위치함
- (주요기능) 브리즈번 강과 연계한 수변공원, 문화집회시설(미술관, 모던아트갤러리, 박물관 등), 교육시설 중 도서관, 이벤트 무대, 도심 속 인공해변 물놀이공간(Street Beach), 대관람차 등이 도시 랜드마크 기능을 함
- 브리즈번 강은 브리즈번의 주요 자연자원으로 산업혁명 이후 산업용도군으로 개발, 발달해 왔음. 1988년 엑스포 개최 이후 브리즈번 강 주변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결과로 브리즈번 강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고 도시 매력도(Amenity) 증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변을 재생하였음
- 특히 2013 브리즈번 강변계획(2013, River's edge strategy-brisbane's inner-city river strategy)¹⁾ 수립으로 단기적인 개발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을 기획, 브리즈번 강변이 지속적으로 도시 매력도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장소성, 활동성, 연계성, 가능성이라는 4가지 이야기와 12가지 전략을 기반으로 구성

1) <https://www.brisbane.qld.gov.au>, River's Edge Strategy

- 장소성: 모두의 장소, 경제적 동력, 세계수준의 아이덴티티, 유연한 공간
 - 활동성: 이벤트공간, 물놀이공간, 활력있는 강변
 - 연계성: 연결된 강, 여객이동
 - 가능성: 강의 브랜드화, 강의 관리 운영, 모두가 잘 아는 장소
- 리버워크(Riverwalk) 페리 운행(무료 운행), 개인보트, 무동력 선박 활용하여 브리즈번 강의 주요 포인트를 연계하고 강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계하는 강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페리 수송을 위한 시티캣(City Cat)과 페리터미널 조성으로 상업 기능 및 강변 주변부 주요 지점을 연계하고 있음
- 다음의 그림에서 제시하는 브리즈번 강변계획 이행 예시도에서는 이동수단별 특화된 전략을 설정, 이행 실행력을 높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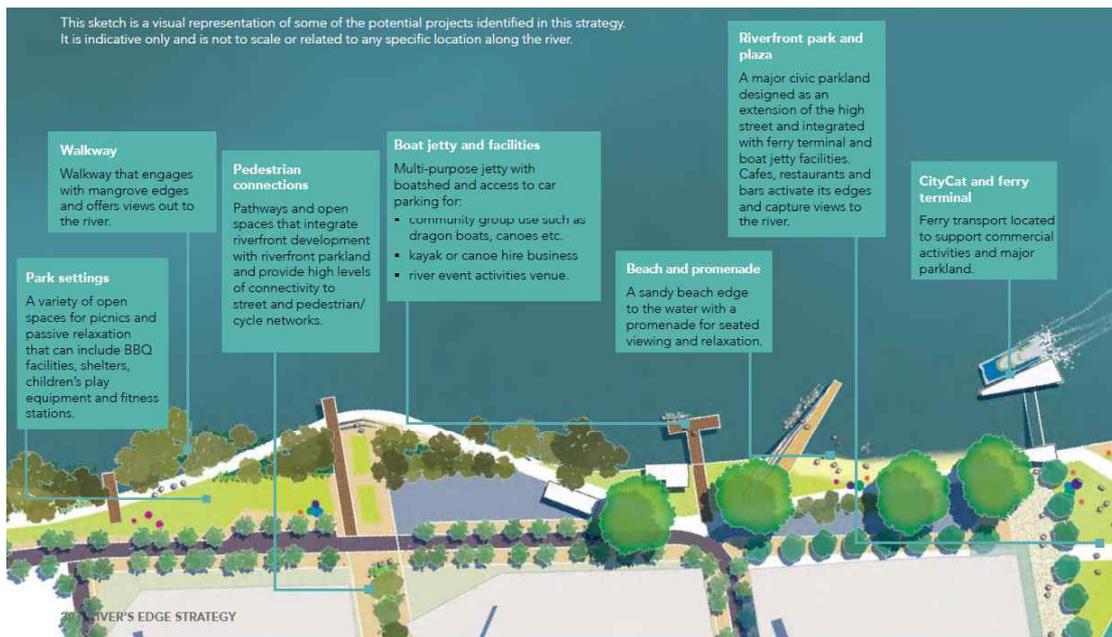


그림 18 브리즈번 강변계획 이행 예시도

출처: <https://www.brisbane.qld.gov.au/sites/default/files/rivers-edge-strategy-sept-2013.pdf>

- 맹그로브와 연결하고 강을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 바비큐파티, 휴식공간, 어린이 놀이 및 피트니스 행위 등을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
 - 인공해변으로 조성한 강변 비치
 - 페리와 보트제트 통합시설 조성, 강변 주변으로 식음시설을 배치하여 강변 활성화 확충
- 공원지구 내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브리즈번을 대표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장소마케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인공해변인 스트리트 비치(Street Beach)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자,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간임. 골드코스트의 모래를 공수하여 인공 비치를 조성하였고, 깨끗한 관리를 통해 도심 속 해수욕장을 연상케 하는 곳으로 발상의 전환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공원지구 주변으로 BRISBANE의 상징 조형물뿐만 아니라 주변 풍경을 볼 수 있는 대관람차,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생활 공간이 연계되어 있어 공간 활용에 있어 관광자원의 집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브리즈번 중심부 8개 역(South Bank 3, Maritime Museum, Thorton Street, Eagle Street Pier, Holman Street, Dockside, Sydney Street)만 운영하는 무료 페리가 있어 사우스뱅크 주변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임
- 도심부를 흐르는 강변 주변으로 밀집된 문화시설,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주요 지점을 다양한 교통수단(자전거, 수상페리, 무동력 선박과 도보)을 효율적으로 연결한 브리즈번 강변계획 사례는 대전시 도심부를 흐르는 갑천 주변으로 수변공원 및 산책로가 계획되어 있고, 대전 예술의 전당과 미술관, 수목원과 천연기념물센터 등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시(※ 대전시와 호주 브리즈번시는 2002년 도시 간 자매결연을 맺음)와 지역적 물리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다만 수변과 주요 문화시설 간 연결을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다소 멀고 수변과 인접한 공원이 인접 간선도로(천변도시고속화도로 등)로 이격되어 있어 보행 연결이 다소 어려운 부분, 수변공원 내 상업시설의 원활한 배치가 어려운 점 등은 도시계획 및 관리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문화재생과 연계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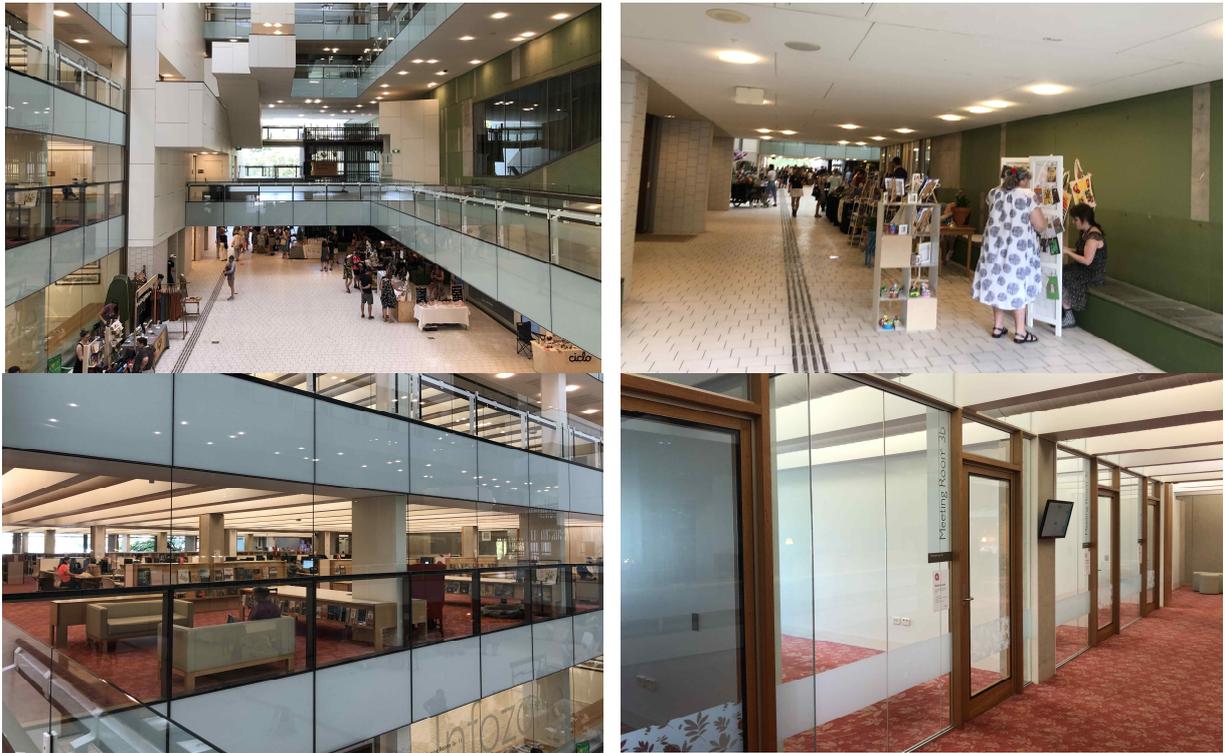
(그림 19) 사우스뱅크 전경사진

(1-2)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도시 문화관광: 퀸즐랜드 주립 도서관

- (위치) Cultural Precinct, Stanley Pl, South Brisbane QLD 4101
- (기본정보) 호주 퀸즐랜드 주 주민에게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퀸즐랜드 기

록 유산, 주요 참고자료 및 연구자료가 집적된 곳으로 퀸즐랜드 문화센터 내 위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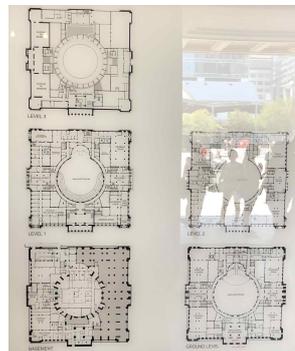
- (주요기능) 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육시설 중 도서관
- 퀸즐랜드 주립 도서관의 1층 공간은 스터디, 업무,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2~3층은 서가, 책상과 컴퓨터, 스탠드 등이 설치된 오픈된 열람실로 계획, 스터디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되었음. 각 층별 강변으로 내다보이는 경관 뷰가 우수함
- 퀸즐랜드 주립 도서관의 형태는 중앙부가 열린 구조로 1층은 외기에 노출되어 있음. 건물 하부 오픈된 공간은 플리마켓이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 마을 단위의 지역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림 20) 퀸즐랜드 주립 도서관 전경사진

(2) 시청사 공간활용: 브리즈번 옛시청사 · 신 시청사

- (위치) 구청사: 64 Adelaide St, Brisbane City QLD 4000 / 신청사: 1 William St, Brisbane City QLD 4000
- (기본정보) 네오클래식 양식으로 1930년대에 세워진 구청사는 약 90m 높이의 시계탑이 있는 브리즈번의 상징성 있는 건축물로, 신청사로의 이전 후 기존 시청사는 미술관, 박물관, 원형의 콘서트홀을 토대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신청사는 원 윌리엄 스트리트라는 도시 두 번째 높이 (259.8m)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하며, 현대적 스타일의 오피스 빌딩으로 국회의사당과 가까운 중심업무지구(CBD)에 위치하고 있음
- (주요기능) 구청사: 문화집회시설, 박물관(3층)/ 신청사: 업무시설
- 브리즈번 옛시청사 건물은 정사각형 평면의 중앙에 원형 회의장을 배치한 형태로 공간 개조 없이 기존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고 있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시계탑(Clock tower)을 전망대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21) 브리즈번 옛 시청사 전경 및 내부사진

- 오كل랜드 시청의 흐름과 비슷하게 신청사는 행정 업무 중심의 역할을 상
기할 수 있는 빌딩인 가운데, 행정 업무를 벗어난 구청사는 건물 자체가 주
는 유산적 매력과 함께 가이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건물 이외의 매력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22) 브리즈번 신 시청사 전경 및 내부사진

(3-1) 친환경 교통체계: 공공자전거

- (위치) Stanley Pl, South Brisbane QLD 4101
- (교통) 시티사이클 스테이션은 브리즈번 도심 전역 150여 곳에 있으며, 주
로 시티 중심부 곳곳과 대부분의 관광명소에 시티사이클 스테이션이 있음
- 대여 시 처음 30분은 무료이며, 31분~60분에 \$2(호주 달러), 60분 이후는
30분마다 \$5의 사용료가 부과됨. 정액권을 구입하면 매달 5불씩 결제하여
무제한으로 탈 수 있음



(그림 23) 브리즈번 공공자전거 : CityCycle

(3-2) 친환경 교통체계: 버스

- (위치) Grey St, South Brisbane QLD 4101
- (교통)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중앙차선으로 운행하며, 버스탑승객은 고가로 이동하여 일반차량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탑승이 가능함
- 브리즈번 주요 중심가인 사우스뱅크 인근의 박물관, 미술관들을 관람하는 이용객들의 대중교통이용률 향상과 안전을 위해 구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4) 대중교통시스템 : 버스

4 호주(시드니)

1. 도시현황

- (명칭) 시드니(Sydney)
- (인구) 2018년 기준 479.2만 명
- (면적) 12,368km² (호주 전체: 7,692,000km²)
- (역사) 시드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州)의 주도이자 행정도시로 호주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임
- 아울러 시드니 항은 이탈리아의 나폴리 항,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 항과 함께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로 손꼽히는 등 시드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도시로 불리고 있음
- 또한 대표 관광명소인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로 대표되는 시드니는 2000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더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음

2. 도시성격

- (최초·최대도시) 호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식민지가 있던 곳으로 호주 개혁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도시인 시드니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인 만큼 호주의 수도(캔버라)로 착각할 만큼 호주를 대표하는 최대 상업도시이자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
- (녹지 천국) 도심 속 빌딩과 집 등의 건축물 곳곳에 나무와 숲이 어우러진 크고 작은 녹지대를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음

3. 현장답사

(1) 대민서비스 통합제공 서비스: 시드니 센터링크

- (위치) 314 Marrickville Rd, Marrickville NSW 2204
- 1997년에 설립된 통합복지행정 전담 기구로 출산지원금, 보육비, 학생지원금, 장애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구직·실업·수당·퇴직자연금 등 모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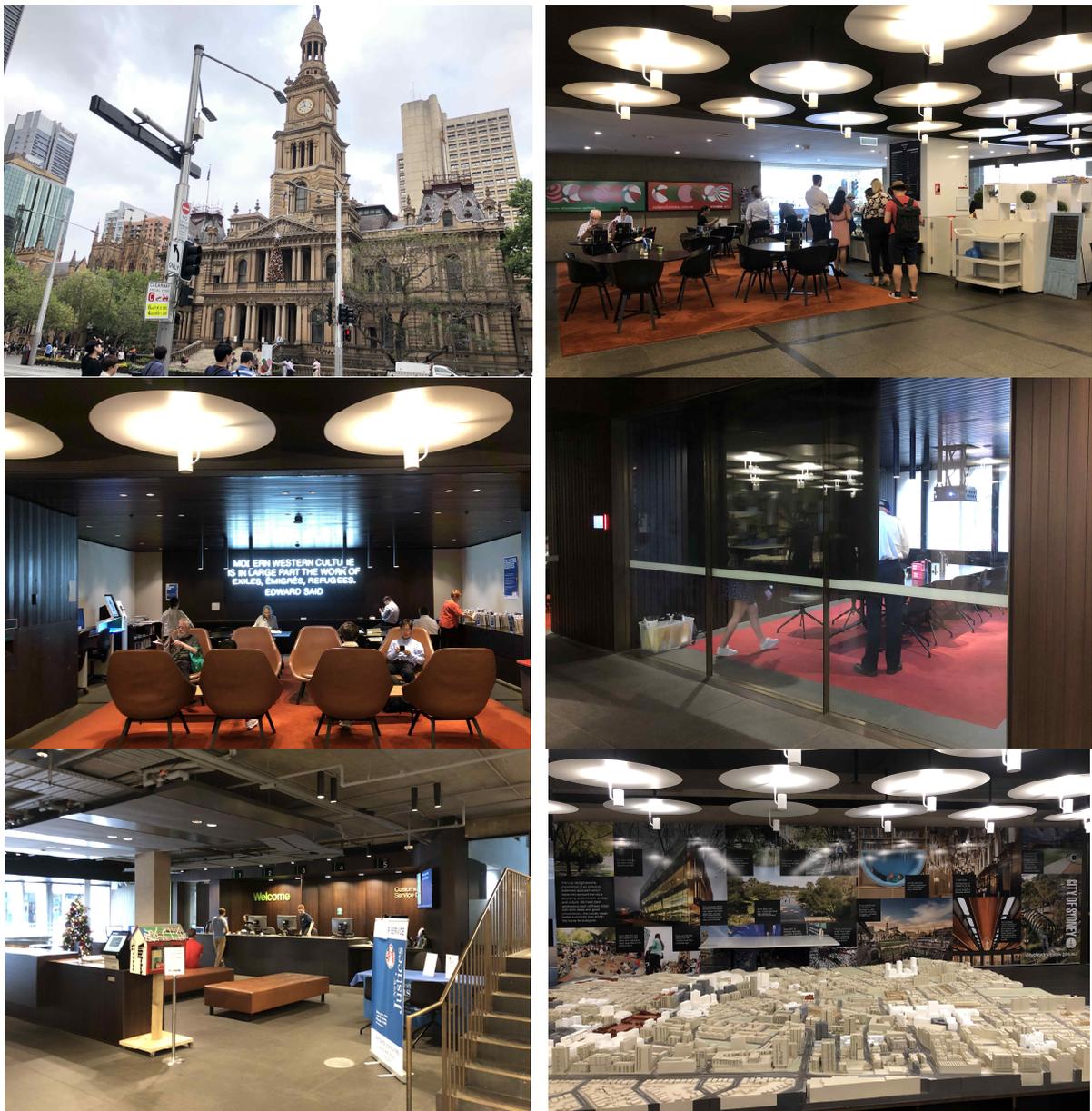


(그림 25) 시드니 센터링크 사진

(2) 시청사 공간활용: 시드니 시청사

- (위치) 483 George St, Sydney NSW 2000
- (기본정보) 퀸 빅토리아 빌딩과 인접한 시드니 시청사는 1880년 빅토리아 양식으로 건립, 주변 현대적 건축물과 비교하여 고풍스러운 외관을 지닌 시드니 랜드마크 중 하나임
- (주요기능) 시의회 회의실 등 업무시설
- 시의회 회의실과 사무실, 9개의 대관홀 등이 있으며, 대관홀 중 가장 큰 센테니얼 홀(Centennial Hall) 내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음. 1층 로비는 소규모 회의실과 휴게공간, 도시 홍보 부스가 위치하고 있음
- 시드니시청 내 1~2층은 시민공간으로 소규모 회의실이 배치되어 예약 후

이용이 가능토록 개방하고 있으며, 소규모 도서공간을 마련하여 도서 검색 및 반납 등이 이루어지는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음. 특히 2층 로비에 도심부를 모형으로 만든 전시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새로이 형성되는 지역을 모형으로 이어 붙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도심부 모형은 승인 보류된 블록, 개발 승인된 블록, 공사 중인 블록, 기존 개발된 블록 등으로 구분하여 현재 개발 현황 및 미래 개발 예정인 블록을 시각적으로 내다볼 수 있어 향후 도시 발달을 읽어내기에 효과적임



(그림 26) 시드니 시청사 전경 및 내부사진

(3-1) 지역 혁신기관: 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 (위치) 15 Broadway, Ultimo NSW 2007
- (기본정보) 「UTS(시드니공과대학)」는 호주 시드니 중심부에 위치한 대학으로 New South Wales Institute of Technology를 전신으로 한 호주의 대표적인 공과대학임
- (비즈니스 스쿨 내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UTS 내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기업가 정신 코스를 통해 ‘혁신과 창업’ 학·석·박사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 하위 전공으로 기술과 혁신, 기업가 정신, 창조 지식과 혁신, 디지털 창조기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창업지원) UTS에서는 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창구로서 「UTS Startups」를 두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여기에는 스타트업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창업과정 단계별 체크업, UTS Startups 파트너 연계, 산업계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활동 지원, UTS Startups Awards 운영 등이 포함됨
-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운영) UTS Startups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608 Harris Street 창업지원공간(창업활동의 허브로서 워크샵, 코워킹 스페이스, 창업보육공간), Proto Space(최첨단 3D프린팅 머신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Tech Lab (대학 내 연구자들의 산업계와의 협업에 의해 다학제적 연구 실행을 할 수 있는 설비 운영, Iot, 로봇틱스, Electromagnetic, 5G 등 최첨단 기술영역에의 대응), Data Arena(360도 인터랙티브 설비로 바이오 마커, 박테리아 추적, 필름·패션·엔터테인먼트에의 적용), Deep Green BioTech Hub(그린 바이오 분야 GMP 시설) 등의 혁신지원 시설 운영



(그림 27) UTS 비즈니스스쿨 창업지원 공간 및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 시드니 시티 대학교(Sydney's City University)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시드니 공과대학교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학임. 학교 주변에 달링 하버, 차이나 타운 등이 위치하여 공부 외에 휴식을 취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건축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시드니공과대학(UTS)의 건축물은 도심부 내 타 용도 건축물과 연접하여 배치되어 있는데 건축물마다 독특한 외관으로 설계되어 지역 혁신기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 건축물의 외장은 전반적으로 유행한 모티브로 비정형을 띄며, 외장마감에 있어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지닌 커튼월, 지역주의적 이미지를 지닌 벽돌 마감으로 계획되어 다채로운 비스타를 보임
-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벽식구조 건축물과 연계하여 정형적으로 모듈화된 건축물을 인접 배치하여 이색적인 도시경관을 자아냄



UTS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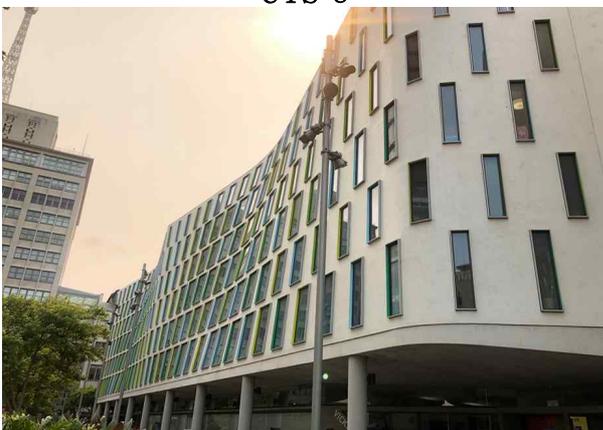
UTS 2



UTS 8



UTS 2



UTS 7

(그림 28) UTS 2·7·8 전경 사진



UTS Tower 저층부



UTS Tower 저층부



UTS Tower

(그림 29) UTS Tower & UTS 7 전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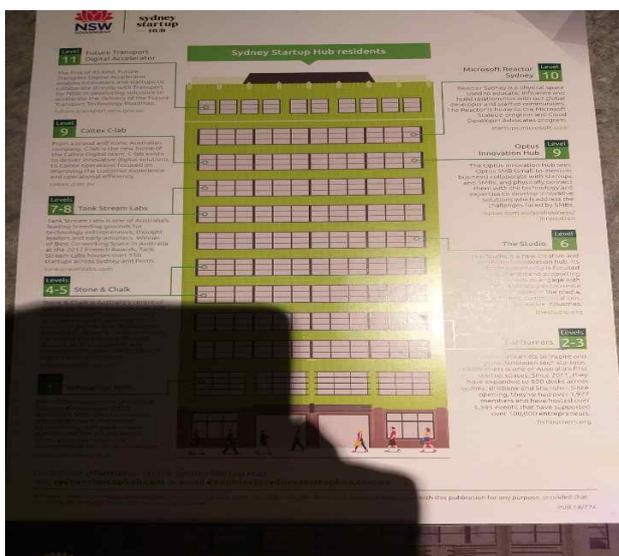
(3-2) 지역 혁신기관: Sydney Startup Hub

- (위치) 111-31 York Street, Sydney, NSW
- (기본정보) 「Sydney Startup Hub」는 호주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도시로서의 시드니의 역할을 강고하게 하고 뉴사우스웨일즈 주(NSW)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Sydney Startup Hub」는 NSW의 스타트업 다양성을 증진 시키고 시드니 스타트업 생태계의 규모 증대와 강화, NSW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는 3대 목표 하에 설립되었음

- (공간과 기능) 「Sydney Startup Hub」는 시드니 CBD(Central Biz District) 내의 11층 건물을 정부가 임대하여 다음과 같이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창업가를 위한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 운영, 기술 도메인별(핀테크, 교통, 창조산업과 미디어 등) Accelerator 역할을 하는 허브 기업 입주, 대기업 (Optus와 Caltex 등)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허브 기업 입주 등 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서비스 및 연계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층별	기능	주요 내용
1층	Innovation NSW	재정, 서비스, 혁신부 산하기관인 Innovation NSW는 복합적인 경제, 환경과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민간 간 파트너십 연계
	Regional Landing Pad	NSW주의 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공간 제공(무료 사무공간, 미팅 및 컨퍼런스 룸, 무료 와이파이 등)
2-3층	Fishburners	호주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로 2011년 오픈한 이래 1,927명의 멤버와 3,345번의 이벤트 및 100,000명의 창업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4-5층	Stone & Chalk	호주의 핀테크 분야의 엑셀러레이터로 140여개 기업과 680명의 인력을 지원
6층	The Studios	창조산업 및 미디어 기술 혁신 허브
7-8층	Tank Stream Labs	기술기반 기업가, 얼리어답터를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9층	Optus Innovation Hub	호주 통신사 Optus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과의 협업을 위한 허브
	Caltex C-lab	Caltex 디지털 팀으로 고객 체험과 운영 효율성 제고 등 Caltex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혁신적 디지털 솔루션 개발
10층	Microsoft Reactor Sydney	글로벌 파트너와 스타트업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물리적 공간. 마이크로 소프트의 스케일업 프로그램과 Cloud Developer Advocate 프로그램 운영
11층	미래 교통 디지털 Accelerator	NSW 주정부의 미래교통기술 로드맵의 구현을 위한 교통 부문 디지털 Accelerator

- (시사점)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는 최근의 혁신공간의 특성이 도심에 입지하여 도심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하면서 밀집성을 추구하여 혁신 주체 간 빈번한 접촉과 네트워킹 효과를 추구하는 경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최근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파크」나 「융합기술혁신센터」 등 혁신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설계에 참고할 수 있음



(그림 30) Sydney Start-up Hub 전경 및 내부 공간

(4-1)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활용: 로얄 보타닉 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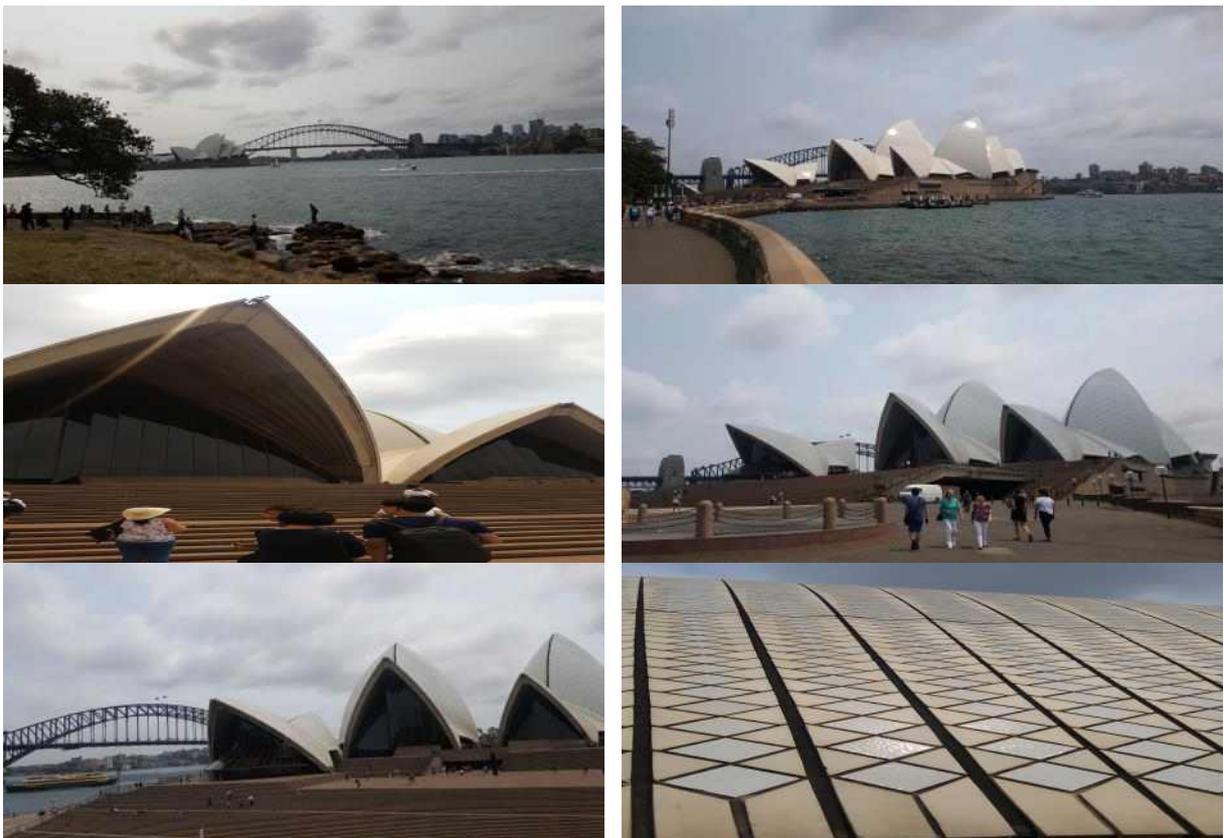
- (위치) Mrs Macquaries Rd, Sydney NSW 2000
- 시드니 왕립 식물원은 100만 그루 이상의 식물과 함께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으로 시드니 시티 내에서 가장 큰 공원임. 1816년부터 조성된 곳으로 10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 이면서 과학 연구 기관으로 주변에는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서큘러 키 등 관광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음
- (관광) 규모만으로 보았을 때 큰 정원이기 때문에 관광 측면에서 관광객의 시선을 압도할 수 있고, 랜드마크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서 아울러 주변 관광자원까지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관광 거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함



(그림 31) 로얄 보타닉 가든 전경사진

(4-2)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활용: 오페라하우스

- (위치)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 덴마크의 건축가 요른 웃존(Jorn Utzon)에 의해 디자인된 세계적 건축물로 100만 개가 넘는 타일을 지붕을 덮는데 사용한 것이 특징임.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될 정도로 호주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으며, 공연이 없어도 주변은 시드니 시민들의 쉼터 역할을 할 정도로 상징성이 높음
- (관광) 오페라하우스는 랜드마크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자원으로 연주라는 기능적 역할 이외에 상징성과 주변 자원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메가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결국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상징성을 강화시켜 관광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32) 오페라하우스 전경사진

(4-3)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활용: 하버 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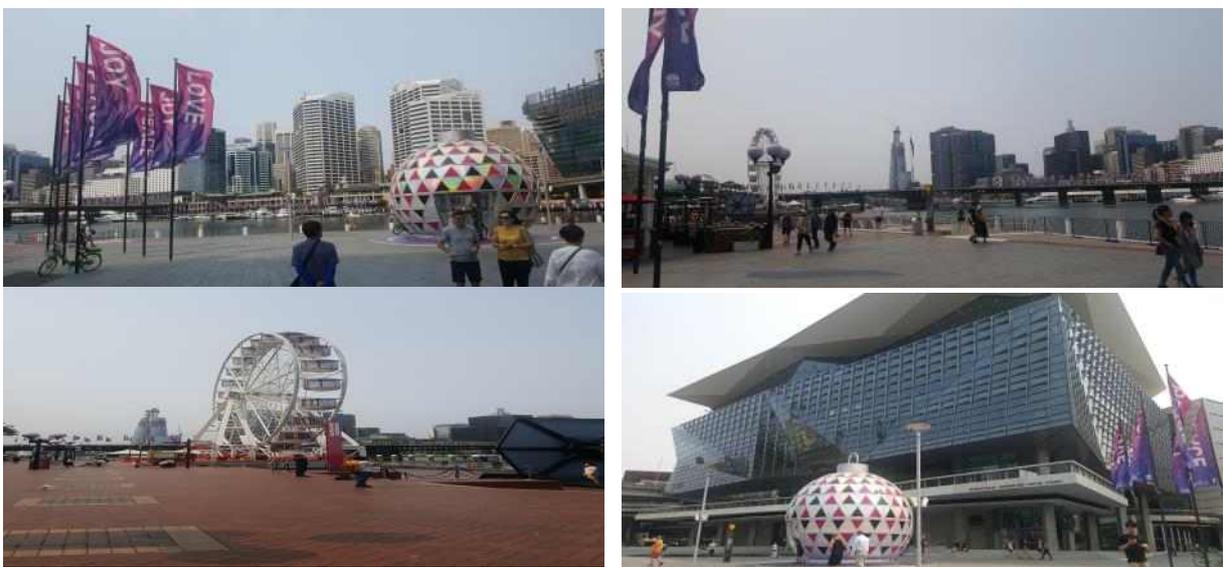
- (위치) Sydney Harbour Bridge, Sydney NSW
- 시드니 시민들에게 ‘웃걸이’ 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하버 브리지는 오페라하우스와 조화를 이루는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1923년 착공하여 8년이 넘는 공사 기간을 통해 1932년에 완공되었음. 자동차가 다니는 공간 이외에 보행자 도로와 함께 200여 개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파일론 전망대가 있음. 새해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불꽃쇼가 개최되며, 그 외에 시드니의 주요 경축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함
- (관광) 사람과 차의 이동 목적으로 다리를 활용하면서도 관광 목적의 활용을 위해 전망대를 위치시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음. 결국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랜드마크 기능을 하고 있음



(그림 33) 하버 브리지 전경사진

(4-4) 도시 문화관광 랜드마크 활용: 달링 하버

- (위치) Darling Harbour Sydney NSW 2000
- 시드니 중심 업무지역에 위치한 달링 하버는 여가와 오락 목적으로 조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선착장 중 하나로 시드니 현지인들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데이트 코스로 유명함. 최근 몇 년 동안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구역으로, 주변에는 쇼핑센터, 박물관, 아쿠아리움, 극장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음
- (관광) 과거에는 발전소와 조선소가 많이 모여 있었으나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1984년 뉴사우스웨일스의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시설과 함께 시내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불꽃놀이, 레이저 쇼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이 되었음. 이 일대에는 모노레일이 운행하면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장 인기 있는 유흥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음. 결국 과거 쇠퇴한 기능을 어떤 목적의 기능으로 재개발 또는 재활용하여 리포지셔닝하는가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사례임



(그림 34) 하버 브리지 전경사진

(5) 자연자원을 활용한 랜드마크: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호주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이곳에는 1950년대 탄광촌을 여러 어트랙션(케이블웨이, 레일웨이, 스카이웨이)으로 재개발하여 블루마운틴의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한 시닉월드 뿐만 아니라 에코 포인트, 세 자매봉 등 광활한 호주의 대자연을 느낄 수 있음
- (관광) 시드니 근교 투어의 핵심 장소로 대자연이 주는 기본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사례임.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자연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을 잘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매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35)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전경사진

(6-1) 친환경 교통체계: 트램

- (위치) George St, Sydney NSW 2000
- (교통) 호주 멜번은 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시드니는 짧은 노선 하나만 있었음.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교통난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트램을 추가 건설하였으며, 많은 민원과 갈등 속에 진행되다가 2019년 12월 14일에 운영을 시작
- 국외 출장 시에는 시드니 트램은 실제 운영을 위해 시범 운영을 몇 달 동안 운행 중이었으며, 이는 일반 차량 및 스마트폰 이용이 잦아진 보행자들과의 충돌 안전문제 때문이라고 함
- 트램을 포함한 시드니의 대중교통(전철, 버스, 페리, 기차)들은 오파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며, 요금은 버스와 동일함



(그림 36)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 트램

(6-2) 친환경 교통체계: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로구조물 설계

- (위치) Park St and Sydney, NSW 2000
- (교통) 자전거 친화도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자전거도로와 인도 및 횡단 보도와 이어지는 도로의 연석을 거의 고차가 없게 설계하였음
-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며, 자전거 이용자 관점에서 설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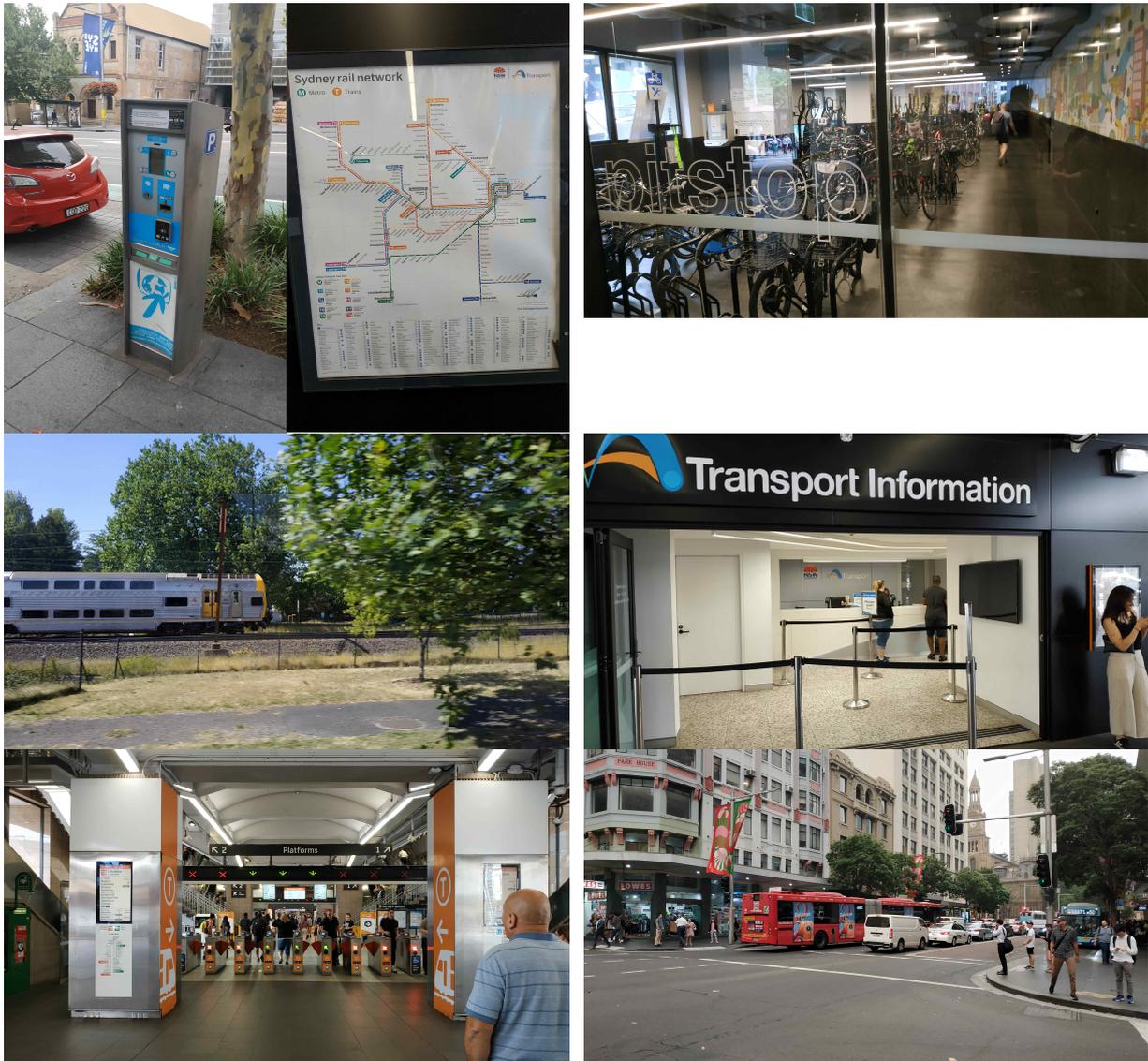


(그림 37) 자전거 통행을 위한 도로 연석 설계

(7)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 (위치) Circular Quay Railway Station, Alfred St, Sydney NSW 2000
- (교통) 대중교통 환승체계 및 개인차량을 위한 주차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대용량 이동수단으로서 굴절버스도 운행하고 있음
- 서큘러 키는 시드니 북쪽 지역에 페리 선착장이 있는 곳으로 도시철도와 버스가 집중되는 교통 결절점이며, 도시철도, 버스, 페리 간 연계환승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시드니 센트럴역은 시드니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집중되는 대규모 환승역이며, 매우 많은 노선이 운행하고 있음
- 시드니시청사 내에는 실내 자전거 보관소를 넓게 운영하여, 근무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림 38) 다양한 대중교통서비스 : 스트리트파킹, 철도, 실내 자전거보관소, 굴절버스

III. 출장 성과(기대효과)

1. 지역 혁신성장 부문

: 지역 혁신기관 공간설계 및 지원 프로그램 특성을 통한 대전 혁신 플랫폼 설계에의 적용

- (혁신지구의 공간특성) 최근 혁신지구의 공간적 특성은 과거와 달리 도심 집중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과학기술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고급 인재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어메니티를 누릴 수 있는 직주근접형 도시를 선호함에 따라 혁신지구의 도심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본 해외 조사에서도 「Callaghan Innovation」이나 「Sydney Startup Hub」의 경우 CBD (Central Biz District) 지역에 입지하여 직주근접 도심형 혁신지구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 (혁신플랫폼 설계) 「Sydney Startup Hub」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하나의 건물에 다양한 스타트업 서비스 기능을 밀집시킴으로써 창업가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혁신 주체 간 긴밀한 네트워킹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특히 기술 도메인별로 창업지원과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입지 함으로써 분야별 통합 지원이 가능하고 타 분야와의 융복합 네트워킹도 유리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대학의 창업지원 기능 강화) 시드니 공과대학이나 그리피스 대학 등 방문한 대학에서도 창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으며, 창업지원 기능은 공과대학과 비즈니스 스쿨 간 연계 구조를 통해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창업지원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공간이나 융합혁신센터

등의 설계에 있어 스타트업 비즈니스 서비스 공간과 기능 등에 참고함으로써 대전이 스타트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도시공간 부문

- (기존 건축물, 지역자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오클랜드 윈야드 쿼터 (Wynyard Quarter), 브리즈번 사우스뱅크(South bank) 등의 사례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도시 기능 설정 차원에서 신규개발 또는 재개발 측면에서의 공간 조성 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증축으로 도시공간 확보 및 공간 재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특히 윈야드 쿼터 사례의 경우 기존 창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활용, 기존 폐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원 조성, 건축물의 친환경 재료 마감을 통한 도시경관의 자연친화적 이미지 구현이 돋보였음. 브리즈번 사우스뱅크(South bank)의 사례에서 수변을 활용한 시민 중심의 공공공간 조성 및 제공, 지속가능한 특화전략 마련을 통해 도시 매력도 증진을 통한 지역관광화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우수 사례로 대전시 갑천변 시민친화적 공간 활용 측면에서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가 요구됨
- 지역자산 활용 측면에서 기존 건축물의 건축양식을 최대한 보존하여 도시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여 도시 관광 측면에서의 집객력을 높이고 있으며, 공연, 전시 등의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통해 공간을 실질적으로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자산 활용도가 매우 높았음. 오클랜드, 브리지번, 시드니의 시청사 경우 행정업무 기능의 증대에 따른 공간 확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및 이용성 저하 등으로 신청사로 이전하였으며, 기존 청사 건축물을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도시 랜드마크 기능으로서 도시 관광을 견인하는 등 기존 건축물의 활용 측면에서 우수 사례로 판단됨

- 대전시의 경우 6대 광역시 중 근대문화유산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은 도시로 등록문화재 중 동산을 제외한 건축물이 16개소로 종교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11개소가 동구 및 중구 등 원도심에 밀집해 있음. 최근 대전역 소재동 주변으로 철도관사촌을 비롯하여 민간에서의 자발적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바 원도심 근대문화유산과의 적극적인 연계개발로 시너지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 뉴질랜드, 호주의 주요 도시 시청사 중 별도의 시민공간을 조성, 제공하는 사례로는 시드니시청사가 있으며, 시청사 내 시민친화적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청사 내 별도의 시민공간을 조성하여 특화한 사례는 크게 보이지 않음. 이는 생활권 중심의 주민센터에서 대민업무 수행 및 시민 개방공간이 제공되고, 도서관과 전시관, 박물관 등 문화집회시설 내 시민이 충분히 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마련되어 있어 조성에 대한 필요도가 낮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공공청사에서의 시민친화적 공간과 관련하여 시드니시청사 사례의 경우 1층과 2층을 중심으로 간이도서관, 북카페, 소규모 회의공간을 마련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시청사 2층에 도시안내센터와 도시 중심부 모형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도시의 성장과 발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도시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라 판단됨.
- 도서관에서의 시민친화적 공간과 관련하여 오uckland 도서관의 경우 1층 공간을 유연하게 조성하여 공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브리즈번 도서관의 경우 1층 오픈부 공간을 공연, 플리마켓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어 건물 내 외부 공간과 연계한 시민친화적 공간 활용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건축물 파사드와 도시 랜드마크) 지역 혁신성장 부문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혁신기관이 직주근접형으로 도심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듯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또한 도심부 내 위치하여 건축물 파사드를 통한 이색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드니공과대학(UTS)의 경우 건축물 파사드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나타남.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공과대학을 연상하는 비정형의 유연한 형태와 유리 커튼월, 스틸 등을 이용한 하이테크한 이미지로 구현하고 있으며, 일부 건축물의 경우 유명 건축가(UTS 8의 경우 구겐하임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 작품)가 설계하여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건축물에 투영되는 등 건축물 파사드 특화를 통해서도 도시 랜드마크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교통 부문

-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뉴질랜드나 호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주요 교통 수단으로 편리한 대중교통이 많았으며, 특히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의 활용도가 높음을 볼 수 있었음
- 호주 시드니의 경우 트램 건설을 위한 정책수립 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적었으나, 건설에 착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를 잠식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통불편을 야기했을 때에는 트램 조성 자체에 민원이나 반대 의견이 많았고, 최종 완공되어 시범운행을 통해 편의성을 제공했을 때는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하였음
- 뉴질랜드와 호주의 경우 시민 건강과 친환경적인 도시생활을 위해 녹색도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트램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요 중심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 중심가를 누비는 트램과 스마트 폰의 활용도가 높아 주변을 살피지

않는 보행자들의 추돌사고가 높게 예상되어 몇 개월간의 계도기간과 장기간의 시범운행을 시행하는 점에 시사점이 있음

- **(자전거 및 보행자 위주의 도로 설계)** 뉴질랜드나 호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자전거 도로의 구축 확장뿐만 아니라, 실제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 주행을 하였을 때 안전 요소나 불편한 요소들을 미리 방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음
-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연석 부분을 거의 충격이 없도록 고차를 없애는 설계와 자전거 신호대기 공간 등 자전거 탑승자 관점에서 설계되어있음
- 자전거 통근이나 통학을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실외 보관소를 차양이나 비 등을 피할수 있는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 건설하였으며, 실내 보관소에는 샤워시설과 탈의실 등을 구비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 **(공유차량 택시 플랫폼의 활용)**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도심지 내부 이동시, 국내에서는 이용이 어려운 우버를 종종 사용하였는데, 일반택시보다 앱 서비스 및 요금 측면에서 좀 더 장점이 많았으며, 매칭된 기사의 평점 확인을 통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었음
-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따로 앱 설치 필요 없이, 동일한 앱으로 국가에 상관없이 쉽게 사용이 가능한 점도 인상 깊었음
- 호주의 경우에는 우버 이외에도 볼트, 올라 등 다양한 공유차량 플랫폼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공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음

4. 관광 부문

- **(랜드마크의 중요성)** 뉴질랜드나 호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여러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도모할 수 있는 한 곳을 랜드마크 기능으로 개발하여 기능을 부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음

- 즉, 한 곳이라도 관광객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소비자 경험주의 극대화)** 뉴질랜드나 호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오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눈에 띈
- 가령 오클랜드나 브리즈번의 경우 구청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의 시드니타워는 고층부가 움직이면서 관람 포인트에 변화를 주고 있음
- 또한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나 시드니의 하버 브리지 등은 공원이나 다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외에 관광 목적의 기능을 적극적 활용하고 있음
- 결국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소비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여가 선용 공간 확대의 중요성)** 뉴질랜드나 호주의 사례를 보았을 때 오클랜드의 오클랜드 도메인,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 시드니의 로얄 보타닉 가든 등은 여가시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설계되었고, 대규모의 녹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음
- 결국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정적 활동과 다양한 여가시설 활용이라는 동적 활동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시설 집적화의 중요성)** 뉴질랜드나 호주의 사례를 보았을 때 기능성이 있는 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면으로 확대하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가령 오클랜드의 스카이다워는 호텔, 카지노 등이 위치한 스카이스티에 위치하면서 방문객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브리즈번의 사우스

뱅크 또한 주변에 대관람차,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다양한 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구성하여 방문객이 시설 이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음

- 결국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공간(예: 사우스뱅크)을 계획하고, 이를 중심으로 기능성을 하나씩 추가하여 시설 이용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포지셔닝의 중요성)** 뉴질랜드나 호주의 사례를 보았을 때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포지셔닝 전략을 찾아볼 수 있음
- 즉, 최초가 아니어도 최대 규모, 또는 최장 길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관광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 가령 오클랜드의 경우 화산 폭발로 형성된 대규모의 부지를 활용하여 오클랜드의 랜드마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쟁기념박물관을 세웠고, 골드코스트는 세계 3대 해변이라는 칭호와 약 43km의 해변 길이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세웠음
- 그 외에 브리즈번의 사우스뱅크에는 인공 해변을 조성하였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가장 많은 타일을 활용하여 지붕을 구성하였음
- 이처럼 각 도시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활용하여 관광 이미지화를 극대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